

# 원호스님 중생사랑 현장서 확인

## 장휘옥교수 '자 떠나자 원호 찾으러'

고승들의 행적과 사상을 쉽게 탐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신간(자 떠나자 원호 찾으러)은 그 답을 찾을 수 있는 모델이다. 장휘옥교수는 '대화여행'으로 원호스님 전기 읽기를 새롭게 시도했다. 원호스님에 대해 전문적인 지식을 겸비한 저자 장교수와 원호스님에 대해 무지한 친구가 원호스님을 찾아 여행을 떠난다.



저지 않는다. 대화체의 문장을 통해 원호스님에 대한 여러가지 사료와 학자들의 논문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 수정하며 역사속으로 끌어들여 파고든다. 이미 알려진 사실만을 재밌게 구성한 것은 아니다. 원호스님에 관한 최신의 연구결과와 논쟁이 책의 가치를 더해준다.

작가의 표현대로 '원호스님의 꾀미기만 훑고 있는 범주에서 벗어나' 원호, 그의 생애와 사상이란 화두를 들고, 독자들은 이 여행의 동반자가 되어 원호스님의 생애에 질문을 던지게 된다.

원호스님에 대해 알 수 있는 자료들이 어디에 나와 있는지, 원호스님 유적지들이 어디 어디인지, 태어난 곳은 어디인지, 왜 출가했는지, 요석공주 때문에 파계했다던데 그건 무슨 뜻인지, 모르는 사람의 수준에 맞추어 원호의 사상을 쉽게 설명해 줄 수 없는지... 그러한 불교학자인 장교수는 가끔씩 친구의 무식을 놀려대기는 하지만 차근차근 자상하게 대답을 해준다. 원호스님의 생애와 사상, 무엇보다 가벼워 보이진 않는 단어들이다. 하지만 친구와 손잡고 떠난 여행속에서 무거운 주제들을 생활속의 잡담, 수다와 같이 풀어내고 있는 저자 특유의 필치가 돋보인다.

이 책은 단순히 쉽고 재미있게 읽는 것에서만 그

설명한다. 새로운 자료가 발견되지 않은 2차 유학시도는 역사의 미스터리로 남을지도 모른다고 덧붙인다. 깨달음에 대해서는 <종경록> <송고승전> <임간록> 등에 수록된 내용을 비교 검토하면서 깨달음의 장소가 무덤이었다는 것은 일치하지만 계기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송고승전>에는 해골이 나뭇구멍은 고분속임을 알았을 때로, <종경록>과 <임간록>에는 샘물인 줄만 알고 마셨던 물은 달고 시원했으나 그 물이 해골에 고여 있던 물임을 본 다음 역겨움을 경험한 것이 교묘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저자는 저술연대가 제일 빠른 <종경록>에 가장 신빙성을 두고 있지만, 설화적인 색채가 배어있기 때문에 어느것이 옳고 그름을 단정짓기는 어렵다고 결론을 맺는다. 이밖에도 이 책에서

### 생애와 사상등 무거운 주제 여행하며 대화하며 공부 기행문 형식의 원호연구사

는 원호스님의 수많은 경문과 주석서를 인용하면서 행적·사상·업적 등을 낱말로 파헤치고 있다.

원호스님에 대한 수많은 논쟁들을 다년간 연구한 불교학자의 연구 성과가 대화속에서 하나씩 정리되고 있는 셈이다. 때문에 기행문 형식으로 쓴 원호연구사라고도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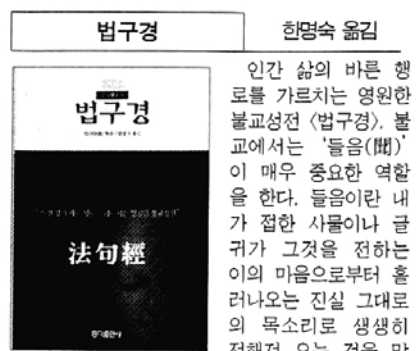
특히 저자는 마지막 부분에 친구인 지영이 엄마에게 쓰는 편지 형식의 글을 통해 '원호스님은 중생을 얼마나 사랑했나'를 원호스님의 저술 <무량수경중요>를 통해 학습이 아니라 무애자재한 실천행으로 스님을 집중 분석하고 있다.

말미의 청바지를 빌려 입고 들뜬 마음으로 잠을 설치고 <삼국유사>를 뒤적이며 원호스님의 발자취를 더듬어 가는 친구의 공부의 여정속의 체험들과 어우러져 독자들의 공감을 충족시켜 준다. 또 여행중에 찍어온 사진들을 모아 감상과 에피소드들을 적어 넣은 것들은 마치 여행후 앨범을 뒤적듯 솔솔한 재미도 느낀다.

원호스님의 유적지를 직접 찾아 다니며 친구와 나눈 대화로 구성된 <자 떠나자...>는 원호스님의 사상을 물론 술술까지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도록 하는 길잡이가 된다. (시공사 판, 값 7천원)

김중근 기자(gamja@buddhopia.com)

### 구절마다 바른 삶의 행로 제시



인간 삶의 바른 행로를 가르치는 영원한 불교성전 <법구경>. 불교에서는 '들음(聞)'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들음이란 내가 접한 사물이나 글귀가 그것을 전하는 이의 마음으로부터 흘러나오는 진실 그대로의 목소리로 생생히 전해져 오는 것을 말한다. 한명숙씨(가산불교문화연구원 상임연구원)가 팔리어본을 옮긴 신간 <법구경>을 한 구절 한 구절 읽어가다보면 마음속에 인간 삶의 바른 행로를 전하고자 하는 성현의 말씀이 사무치게 들려올 것이다.

수많은 경전 중에서도 <법구경>이 불자들에게 가장 널리 읽혀 온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홍익 판, 값 1만천원>

### 화제의 책

#### 산사에서 '나'를 돌아보고 오자



산사 순례기. 우리나라 곳곳에 산재한 산사를 찾아 그 유래와 정신을 진술하게 되고 있다. 시가 있는 풍경을 노래한 운화사, 관음사 도솔암, 가을 설악의 신흥사 등 각 사찰들의 특성을 살린 저자 특유의 문학적 향취를 느끼게 한다. 중요한 것은 고

속도로 달리는 차 안에서 그저 한 번 보고 지나치는 산사는 아니다. 정경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내 삶의 반추를 해 볼 수 있는 산사들이다. 이 책은 우리 산사 곳곳에 대한 회관이 넘친다. 저자 박건태씨의 유년시절에 대한 회상과 <화엄경>에 대한 논문도 간략하게 게재돼 있다. 우리가 걸어가는 곳이 이 풀만이 아닐까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한다. <한국불교연구원 판, 값 8천 5백원>

#### ◇금주의 베스트블서 10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승려와 철학자	장프랑수아 창작시대	창작시대
2	산에는 꽃이피네(소)	법 정 동쪽나라	정우사
3	티베트에서 온...	주 민 환 정 우 사	정우사
4	거지성자	전 재 선 신 재	신재
5	육바라밀 수행법	김 현 준 호 립	호림
6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불교대니	불교대니
7	길잡이는 곳에 임자가 있다	정 찬 주 해들누리	해들누리
8	무문관 혹은 너는 누구냐	한 형 조 여시아문	여시아문
9	예불문과 반야심경	무 비 불 일	불일
10	역주 수능결경	일 귀 불 일	불일

구입문의: (02)737-0695

### 새로운 책



▲화엄법계의 소 울음 소리들 들었느냐= 사람들은 불심이 절 안에서만 이루어진다고 상상하고 무거운 경전에서 찾으려

고 한다. 그러나 불성은 산에 있는 것도 아니고, 불경속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 있다. 그 일상생활속에서 얼마든지 불성을 찾을 수 있다. 불심과 불성은 절이나 경전이 아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생활속에 있음을 강조한 만용스님(삼봉정사 주지)의 명상록. <빛샘 판, 7천원>



▲다시 보는 명심보감= 선조들의 삶의 지혜가 녹취된 책. 자녀교육문제, 고부간·부부간 불화, 직장문제 등 신도들의 고

민과 아픔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은 없을까. 주위의 조언을 구하고 수많은 서적을 뒤적이며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명심보감>을 선택하고 생활지혜를 바탕으로 새롭게 역었다. 이 책은 왜 선하게 살아야 하며, 배움을 계속해야 하는가를 조목조목 쉽게 가르쳐 준다. 허경스님 역음. <금산 판, 값 7천원>



▲영가천도= 방황하는 영가를 올바르게 천도하여 주변을 다스리고 복을 쌓는 방법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죽음뒤의

세상> '영가가 깃드는 사람' '영가천도의 기본자세' '여러가지 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와 무주종 혼 천도' 등 모두 6장으로 구성. 영가천도는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의 근본가치는 아니지만 하나의 방편으로서 중요한 수행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우릉스님 지음. <효림 판, 값 3천5백원>



▲방생공덕담 로묘우=도취스님(연등사 주지)이 티베트 저명한 승려를 만나 '방생공덕이 무량하다'는 설법을

듣고 정리한 책. '뜻 생명을 살리는 공덕이 이 세상에서 제일가는 공덕이다.' '뜻 생명을 죽이는 내 생명의 죽음이다' 등 방생의 공덕과 살생의 과실을 대비하여 방생의 소중함을 전하고 있다. 또 방생이 현대에 고봉받고 필박받은 중생을 위한 것임도 강조한다. <부다 가야 판, 값 4천원>

## 바위서 문화의 뿌리 찾는다

### 노승대씨 '바위로 배우는 우리문화'

입산(入山). 선조들은 산에 오르다는 말 대신에 산에 든다(入山)는 말을 애용했다. 산은 엄숙하고 숭고한 기도처로써 신성한 품속으로 들어간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특히 영산을 들어갈 때는 대·소변 그곳을 가져가기도 했다. 지금도 우리는 어떤 종교를 믿고 있던 간에 기도처로서 산을 곱는다. 명산대찰과 작은 암자가 산에 있다는 사실이 이를 잘 반증해주고 있다. 노승대씨가 10여년간 전국의 산을

찾아 쓴 신간 <바위로 배우는 우리문화>는 산속에 있는 바위들이 우리문화의 한 부분임을 탐색한 책. 사찰·봉우리·산의 바위문화가 각각 수록된 이 책에는 전국의 산에 남겨진 마루바위, 선바위, 거북바위, 알터 등을 추적하여 전통신앙과 문화를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 바위들이 불교나 민속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술하고 있다. <무한 판, 값 1만5천원>



◇영양 원출산 해발 600m의 바위에 새겨진 마애불.

## 티베트관련 책 출간 '붓물'

최근들어 티베트인들의 삶 속에 스며있는 불교적 세계관과 삶과 죽음의 문제를 다룬 책들이 잇달아 출간되고 있어 주목을 끌고 있다.

최근 소설가 김명준씨가 펴낸 <티베트에서 온 편지>(사계절 판)는 현대 문명을 다시 생각해 보게 한다. 티베트 라사에서 중국 베이징까지 여행하면서 자연과 성 문명에 대한 생각들을 적었다.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의 강연내용을 담은 <티베트의 성자와 보낸 3월>(솔 판), 라마 소파린포체의 '깨달음으로 이끄는 사고변화 수행법'에 대한 설명집 <티베트에서 온 행복의 열쇠>(정우사 판), 소갈 린포체가 바라본 삶과 죽음의 철학인 <티베트의 지혜>(민음사 판), 불교에 대한 마음가짐과 수행의 중요성을 설명하고 있는 초콜렛스님의 <깨달음으로 가는 올바른 순서>(여시아문 판) 등이 대표적 티베트 관련 불서이다.

이밖에도 <티베트 방랑기>(한양 판), <티베트 사자의 서>(정신세계사 판), <오래된 미래, 라다크로부터 배운다>(녹색평론사 판), <모독>(학고재 판) 등이 나와 있다.

## "내 영혼의 어머니는 불교"

### 최인호 수상록 '...스님이 되고 싶다'

가톨릭 신자인 증경작가 최인호씨(54)가 불교 수상록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를 내놓았다. 3부로 이루어진 수상록을 통해 생활속에서 마주친 불교와 가족들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표현하고 있다.

가톨릭문학상을 수상했던 독실한 가톨릭 신자가 5년 여간 절을 찾다다니다 불교에 심취한 이유는 무엇일까. "내 정신의 아버지가 가톨릭이라면 내 영혼의 어머니는 불교이다"라는

것이 그의 대답이다. '불교적 가톨릭 신자'라고 털어놓은 그는 경허스님의 행장을 소설로 옮기기 위해 체계적, 수석사 등을 답사하고 다닌 무렵 정말 스님이 되고 싶었다고 고백한다. 가톨릭 신자인 그가 불교와 인연을 맺게 된 것은 경허스님 법어집 가운데 '일 없음이 오히려 할 일거늘(無事猶成事)'이라는 문구다. 그는 "이 한구절을 통해 한국 근대 불교의 큰스님 경허라는 두레박을 발



나는 아직도 스님이 되고 싶다

견하게 되었고, 그 두레박을 타고 불교의 깊은 우물로 들어갈 수 있었다"고 고백한다. 우리 민족의 성격을 형성시킨 불교의 정신이 우리민족의 영혼임을 깨달았다는 그는 불자들에게 대한 충고도 잊지 않는다. "불교인들이 뾰족이 낀 연필의 축처럼 정신의 축이 날카로워지기를 바란다." <여백 판, 값 7천원>

"스님, 영가는 어떻게 천도합니까?"

### 우릉크스님의

# 영가천도

4×6판 / 160면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다?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사경천도법, 사십구제,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릉크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 우릉크스님 법문집

# 불교신행의 주춧돌

불교! 어떻게 믿고 실천해야 합니까?

일평생을 수행과 중생교화를 위해 살아오신 우릉크스님의 불교신행 지침서. 신행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피하고 올바른 정진으로 나아가는데 꼭 필요한 마음가짐과 신행방법 등을 자상한 문체와 일화들로 알기 쉽게 엮었습니다.

- I. 지성(至誠)으로 살자
- II. 불자의 살림살이
- III. 불자의 축원
- IV. 불자의 기도
- V. 일체고역을 벗어나는 길
- VI. 불교신행의 주춧돌

신국판 / 240면 / 값 5,000원

## 월간 『법공양』을 보셨습니까?



월간 『법공양』은 불자들의 바른 신생활을 위해 매월 1회 발간하는 64쪽의 조그마한 잡지입니다.

불자들의 신심을 북돋우어 주는 큰스님들의 비증있는 법문과 신생활의 길잡이가 될 수 있는 김현준 원장의 글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1년 구독회비는 1만원이며 법보시를 원하는 분을 운영위원으로도 모시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월간 『법공양』을 보지 못하셨다면 지금 신청하십시오. 이 한 권의 잡지가 틀림없이 신생활의 기초를 다져주고 기쁨을 선사할 것입니다.

회원가입 및 문의 : ☎ (02) 587-6613

불교신행연구원